

# 재귀적 동사에 관한 韓 · 日 비교연구\*

— 「입다/벗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를 중심으로 —

全成龍\*\*

(e-mail : immanuel@cju.ac.kr)

---

## 目次

---

1. 들어가며
  2. 상반신의 의복의 경우
  3. 하반신의 의복의 경우
  4. 상 · 하반신의 의복이 붙어 있거나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
  5. 일반칭의 경우
  6. 마치며
- 

## 1. 들어가며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국 간 언어에 있어, 서로 대응하는 再歸的 동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再歸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결과, 동작의 대상(對象語)이 변화를 일으켜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動作主 자신(主語)에게 영향을 끼쳐, 동작 주체인 자기 자신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再歸的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 연구의 대상으로 「(반지를) 끼다」 「(안경을) 쓰다」 「(장갑을) 벗다」 「(모자를) 쓰다」 등과 같은 동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奥田靖雄씨의 「とりつけ動詞/ とりはずし動詞」에 속하

---

\* 이 논문은 2010-2011년도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1) 高橋太郎(2003) 『動詞九章』 ひつじ書房, p135~138

는 동사로서<sup>2)</sup>, 連語論<sup>3)</sup>적으로는 衣服과 결합하는 동사, 즉 「입다(着る) / 벗다(脱ぐ)」와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着る(입다)」와 「はおる(입다)」가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서로 다른가? 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의 차이에 대한 記述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기로 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들 동사에 대한 의미 분석은, 일본어의 경우는 昭和 47년 国立国語研究所에서 발간된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이며, 또 필자는 韓·日 양국의 언어에 있어 이들의 동사를 비교하여, 이들 동사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本稿의 목적이지만, 類似語彙들간의 의미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 2. 상반신의 의복의 경우

우선 일본어의 경우, 사람이 상반신의 의복을 입을 때는 「着る」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 예에서 보여지 듯 「はおる」라는 동사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1; 入口に枯葉色のツイードの替上衣を着て、こげ茶のシャツを着た中年の男が立っている。彼は会釈しながら、まぶしそうに梨絵をみつめた。(水中花)

예2; 私はブラウスを着ながら、「もう少しかかるみたい」と言った。(早春物語)

예3; カナ子は紺色のズボンに白いジャケットを着ているが、雪国の娘たちがたいていそうであるように、秋のころに較べるといちだんと肉がついて、頬などは赤ぐろいつやを放って光っている。(若い娘)

예4; 私は、スラックス姿で薄いセーターをはおって、コテージの鍵を持つと、ちょっと彼の方へ目をやってから、表に出た。(早春物語)

예5; 今野は立ちあがると、上衣をはおって、茶色のズックのバッグに、筆箱や、ノートや、原稿用紙、鉛筆削り器、などを手早くつめ込みはじめた。(水中花)

예6; 夏目は、鼻唄まじりにシャツを羽織っていた。何気なくつけておいたテレビは、ニュース番組が始まっているが、そろそろ出かける時間だ。夏目はスイッチを切ろうとして、画面に映った斉藤麗子の顔写真を見て、あっと思った。(最後の恋)

이에 반해 한국어의 경우, 상반신의 의복을 입을 때는 「입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 예에서 보여지 듯 「걸치다」라는 동사도 사

2) 奥田靖雄(1983) 「を格のかたちをとる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所収) p.151~279

3) 言語学研究会編(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むぎ書房

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7; 승우는 청바지에 푸른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앞 머리카락이 적당히 흘러내려 와 자연스럽게 이마를 덮고 있었다. (국화꽃 향기)

예8; 전철이 합정역에 도착하자 승우가 앉은 좌석 가까이에 있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올라탔다. 한 사람은 오전부터 외근을 나온, 마냥 피곤한 표정의 샐러리맨이었고, 한 사람은 등이 구부러지기 시작한 할머니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스물두어 살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대략 161센티미터의 키에 호리호리한 느낌을 주는 그녀는 군복에 검정 물들인 듯한 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국화꽃 향기)

예9; “너 먼저 해. 너, 백사장에서 얼마나 들뛰었던지 땀이 쉬는 냄새가 폴폴 나더라.”

“그랬을 거야. 진중일 땀 기분이니까.”

승우는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채 목에 수건을 두르고 싱긋 웃으며 샤워실로 들어갔다. (국화꽃 향기)

예10; “와오, 형 정말 장가가게?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더니?”

휘파람을 부는 동생 놈에게 험악한 시선을 보내며 도영은 그 중 하나를 골라 셔츠를 걸치고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 어려운 게 없었던 형의 얼굴에서 얼핏 스치는 약간의 초조함을 알아본 도영은 곧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내 이름은 김삼순)

예11; 그녀는 늘씬한 팔등신 미녀였다. 밑에는 청바지를 입었고 위에는 흰색의 얇은 티셔츠만을 걸치고 있었다. (최후의 밀서)

예12; 미주는 동네 아줌마처럼 스웨터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는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갔다. 편의점 입구에 놓인 노란 바구니를 들고 미주는 필요한 물품들을 골랐다. (국화꽃 향기)

그런데 상반신의 의복을 벗을 때, 다음 예에서 보여지 듯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脱ぐ」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取る」라는 동사도 사용된다.

예13; 竹藪の側を駆け抜けると、夕焼けのした日金山の空も、もう火照りが消えかかっていた。良平は愈(いよいよ)気が気でなかった。往きと歸りと変わるせいか、景色の違うのも不安だった。すると今度は着物までも、汗で濡れ通ったのが気になったから、やはり必死に駆け続けたなり、羽織を路側(みちばた)へ脱いで捨てた。(トロッコ)

예14; 準次は、肯(うなず)いてベッドへ這い上った。藁(わら)のマットらしく、ベッドはがさがさ音を立てた。彼は、上衣を脱ぎ、ズボンを脱いでどこちなくベッドに横たわっ

た。するとまた、善やんと称する男がやってきた。(神の道化師)

예15; 今泉見習士官は、下士官を連れて二十歩ほど下流に向ったところで、突然、外套を脱ぎ捨て、上衣を取り、上半身裸になった。彼に続いて下士官一名もまた同じように裸になった。(八甲田山死の彷徨)

이에 반해 한국어는 상반신의 의복을 벗을 때 「벗다」라는 동사만이 사용된다.

예16; “어때요? 벗은 옷은 여기 담으면 되잖아요.”

더 버티면 투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저고리를 벗고 잠바를 걸쳤다.

“어울리지요?”

강지연이 자랑스런 듯이 미선이를 봤다.(오월의 미소)

예17; 오 세철은 나미를 쳐다보지도 않고 블루진 상의를 벗으면서 그렇게 물었다. 나미는 명청한 기분으로 서서 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갈아 입을 팬티도 없다. 니꺼 하나 빌려 입자.”

바지까지 벗어서 소파 위에 던져 놓고 흰색 삼각팬티만 남은 날다리로 서서 그는 자주색 티셔츠를 벗고 위도 알몸이 되었다.(그들과 장미)

### 3. 하반신의 의복의 경우

하반신 의복의 경우, 한국어는 상반신의 의복을 입을 때와 동일하게 「입다」라는 동사와 「걸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지만, 일본어는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듯 「はく(신다)」라는 동사와 「着ける」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18; 그녀는 늘씬한 팔등신 미녀였다. 밑에는 청바지를 입었고 위에는 흰색의 얇은 티셔츠만을 걸치고 있었다.(최후의 밀서)

예19; 그는 알고 있다는 듯 끄덕이면서 담배를 뽑아 제대로 물고 불을 당기면서 오른다리를 움직여 왼다리 위로 포개 엮었다. 움직이는 가운 자락으로 얼핏 보이는 그의 다리는 맨살이었다.

‘팬티는 입었다. 이 사람은.(그들과 장미)

예20;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겨울이 되면 얇은 스타킹 하나에 치마를 걸치고 다녀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용 바지 교복을 따로 준비해 입게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 아침 치마 입고 등교하는 아이를 보면 감기를 걸리지 않을까 늘 걱정이다. 한 겨울에 몇 내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도가 많은데, 정작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고 다녀야 한다.

(2008년 1월 14일 조선일보 A33면의 여론 광장)

예21; 타작은 한 시간가량 계속되었는데 옷을 모조리 뺏기고 팬티 하나만 걸친 벌거숭이로 고개를 넘어간 상처투성의 네모 턱 사내가 공범을 데려온 것은 자정이 가까워진 무렵이었다. (왕릉일가)

예22;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겨울이 되면 얇은 스타킹 하나에 치마를 걸치고 다녀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용 바지 교복을 따로 준비해 입게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다. 딸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 아침 치마 입고 등교하는 아이를 보면 감기를 걸리지 않을까 늘 걱정이다. 한 겨울에 몇 내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보도가 많은데, 정작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고 다녀야 한다.

(2008년 1월 14일 조선일보 A33면의 여론 광장)

예23;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공수대원의 구령에 맞춰 네 줄로 늘어선 남녀 몸뚱이들이 절도있게 뒹굴고 있었다. 여자도 십여명이나 되었다. 우리는 무슨 헛것이라도 본 것 같았다. 남자들은 팬티만 걸치고 여자들도 팬티에 브래지어만 걸치고 있었다. (오월의 미소)

예24; 準次には、善やんのいう意味がはっきりわからなかった。それなのに歎かわしくも、起き上がってぼそぼそズボンをはきはじめていた。(神の道化師)

예25; その美弥は、今日はレンガ色のタートルネックのセーターに格子縞のセミタイトのスカートをはいていた。オレンジ色のニッカーとの間に、露出した膝小僧がとても可愛い。(奇病連盟)

예26; 「嫁一人貰えないで、一人前の口を利くことはないよ、お前」

「嫁なんて何ですか。そんなもの貰おうと思ったら、たちどころに貰っちゃいますよ」と、武平もカッとになって言い返した。

「とにかく、山高家の古色蒼然たる生活がいけないのです。これでジュースを飲み、色パンツをはけば、女の十人や二十人、たちどころに寄ってきますよ。今だってぼくは、もてて困っているのだ」

騎虎(きこ)の勢い、彼はだいぶ大げさなことを言った。(奇病連盟)

예27; 準次はびっくりして起き上がった。そして上衣やズボンを着けながら、ふと見ると、向

うのベッドには、モヒ患者の姿は勿論、善やんの姿も見えなかったのである。

(神の道化師)

예28; この仲間外れの男は袴(はかま)だけはつけているが、後鉢巻は儉約して、抜き身の代りに、胸へ太鼓を懸(か)けている。太鼓は、太神楽(たいかぐら)の太鼓と同じものだ。(坊っちゃん)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하반신 의복, 특히 팬티에 대하여 「차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예문이 있는데, 이 「차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것이 「팬티」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신 의복에 통용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문 수가 너무 적어 단정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예29; 그 때 저쪽에서 시위대를 쫓던 공수대원들이 붙잡은 젊은이 서너 명을 끌고 왔다. 팬티만 찬 젊은이들이 고개를 앞사람 가랑이 사이애다 치박고 손으로 앞사람 엉덩이를 붙잡은 자세로 끌려오고 있었다. 그들도 여기저기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오월의 미소)

그런데 하반신의 의복을 벗을 때,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상반신 의복의 경우와 같이 한국어는 「벗다」가 사용되며, 일본어는 「脱ぐ」가 사용된다.

예30; 오 세철은 나미를 쳐다보지도 않고 블루진 상의를 벗으면서 그렇게 물었다.

나미는 명청한 기분으로 서서 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같이 입을 팬티도 없다. 니꺼 하나 빌려 입자.”

바지까지 벗어서 소파 위에 던져 놓고 흰색 삼각팬티만 남은 날다리로 서서 그는 자주색 티셔츠를 벗고 위도 알몸이 되었다.(그들과 장미)

예31; 영은은 천천히 머리를 벗어내려 한 묶음으로 모아 땀았다. 그리고 등이 겁나게 쾌인 노란색 원피스를 벗어놓고 흰색 레이스 짚시치마를 입다가 벗어놓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샀던 흰 바지를 입었다.(겨울새)

예32; 準次は、肯(うなず)いてベッドへ這い上った。藁(わら)のマットらしく、ベッドはがさがさ音を立てた。彼は、上衣を脱ぎ、ズボンを脱いでぎこちなくベッドに横たわった。するとまた、善やんと称する男がやってきた。(神の道化師)

예33; 紐を手でおさえたままの姿勢で、女は男のわきを通りぬけ、部屋に上り、モンペを脱ぎはじめる。

前からつづきの動作を、そのまま続けているような、よどみのない自然さだ。

こういう女が、本当の女なのだと、男は心の中でもみ手する。(砂の女)

## 4. 상·하반신의 의복이 붙어 있거나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

의복 중에서도 원피스·드레스와 같이 상·하반신 부분의 의복이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여지 듯, 일본어는 「着る」「つける」「はおる」「まとう」 등 여러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34; 가운을 着た峰子は、外階段のところに立って、片手を上げている。男が帰ってゆくとこだった。  
くたびれた레인코트을 着た若い男だった。うしろ姿なので顔は見えないが、手を上げている峰子にこたえるように、振り向かないままに片手をあげ、二三次度ひらひらさせた。肉体労働をしていない、先細の美しい手に見えた。(隣の女)
- 예35; 「待っててくれなかったの?」  
と、ダイニングキッチンに入ってきた姉は、あの春からOL一年生で、何だか四十過ぎのおばさんが着るようなグレーのワンピースを着ている。(早春物語)
- 예36; 写真はキャビネ判であった。縦位置の野外写真だ。イチョウらしい木が一本立っていて、その根本に、若い女が横たわっていた。女は白いワンピースをつけて、眼を閉じている。からだは、イチョウの落葉に埋もれていた。(二人で殺人)
- 예37; 風もなく、柔らかい冬の日光が、じいと動かずに、そこら中に漂っている。その中を勤人らしい男女の群が、外套もつけずに、食物屋の多い銀座裏の通りをぞろぞろ歩いていた。(丘は花ざかり)
- 예38; 美上は私をこども扱いにする。  
「しかし」と言いながら、私は起きあがった。  
見ると、美上みどりは、すでに着替えを終わっているのか、グリーン地に赤いチェックの가운을 羽織っていた。(二人で殺人)
- 예39; やがて、武平は레인코트을 羽織って、—— 彼はオーバーというものを持っていないのだ —— ピョコリピョコリと階段を降りていった。(奇病連盟)
- 예40; 「この写真の人なんだけど」  
と、その女性は、拾い上げた写真を私に見せた。  
梶川と、その女性とが並んで写っている。何かのパーティーの席らしい。梶川はタキシード姿、その女性の方は、ストロボの光できらめくような、ドレス을 まとっていた。(早春物語)

이에 비해 한국어는 「입다」 「걸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다. 특히 두루마기와 같은 의복과 같은 것은 「두르다」라는 동사도 쓰일 것 같은데도, 작품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41; 저쪽에 백동영감이 뒷짐을 지고 무등산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늙은 가격의 모습에 나는 잠시 눈이 멈췄다. 구름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갯마루에 서서 먼 하늘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였다.  
(오월의 미소)

예42; “어서 와.”

나미는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빨간 장미가 유혹의 눈길을 보내는 실크로 된 드레스를 입은 화사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해경을 맞아 들었다. (너의 가슴에 나의 사랑을 묻을 수 있다면)

예43; 그들이 보고 있는 곳에는 군용트럭이 세 대나 멈춰 있고 장교로 보이는 공수대원들이 여럿 서성거리고 있었다. 트럭 하나에는 짐칸에서 공수대원들이 바닥을 향해 곤봉을 휘두르고 짐칸 한쪽에는 하얀 가운을 걸친 웬 여자가 두 손으로 가운데가락을 끌어다 앞을 여미고 웅색스런 자세로 서 있었다. 다른 옷은 입지 않고 가운만 걸친 것 같았고, 그나마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오월의 미소)

그런데 의복 중에서도 양복이나 군복처럼 상·하반신의 의복이 한 벌로 세트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본어는 다음에서 보여지 듯 「着る」와 「着ける」라는 동사가 사용된다.

예44; そばを食べる者、酒を飲む者、たがいに持ち込んだ料理に手を伸ばす者、カウンターの中に入り手伝っている者、勝手に冷蔵庫を開け、何やら取り出している者もいる。大売り出しの話、海水浴でのエピソード、孫が生まれた話など、にぎやかさが頂点に達した十時半すぎ、入口の戸がガラガラガラと開いた。幾人かの視線が入口に向けられたのを知り、全員が押し黙る。オーバーを手に、スーツを着た二人の青年が入ってきた。(一杯のかけそば)

예45; すっかり蒸し暑くなった。

退院して、三日目の午後、私は、久しぶりで制服を着た。

もちろん、もう衣替えて、夏用の制服になっている。(早春物語)

예46; 兄の佐藤吉之助が歩いて来る。佐藤吉之助は紺羅紗の軍服を着ていた。

(八甲田山死の彷徨)



예47; アキは洋服を着け、最後にハイヒールを履くと、ホテルの部屋を後にした。

(最後の恋)

예48; 浩は洋服を着けて、岩を踏んだり砂地を歩いたりして、径(みち)まで行った。

(アポロンの島)

이 경우 한국어는 다음 예에서 보여지 듯, 「입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며, 「걸치다」라는 동사가 쓰인 예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예49; 점잖은 회갈색 아르마니 양복과 프라다 투피스를 입은 승우의 부모는 그 동안 지독한 지옥의 터널을 통과해 온 외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 왔다. (국화꽃 향기)

예50; 그때 4가 쪽에서 택시 한대가 운동장처럼 비어 있는 도로를 달려오고 있었다. 몽둥이를 끄나든 중사가 성큼 가로막았다. 급정거를 했다. 각목을 든 장교가 다가갔다. 안에 탄 사람들을 끌어내렸다. 하얀 와이셔츠에 말끔한 검색 양복을 입은 젊은이와 색동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은 색시가 내렸다. (오월의 미소)

예51; 그는 곁에 두었던 옷보따리를 풀어주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수사관과 옷보따리를 번갈아봤다. 여기서는 흰 군복을 입고 있었고 붙잡힐 때의 옷은 영창 한 쪽에 개켜두었는데 보자기에서 나온 것은 내가 집에서 입던 옷이었다. (오월의 미소)

그러나 원피스와 같이 상·하반신의 의복이 붙어 있는 것이나 양복이나 군복처럼 상·하반신의 의복이 세트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벗을 때에는 한국어는 상반신의 의복이나 하반신의 의복의 경우와 동일하게 「벗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며, 일본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脱ぐ」라는 동사가 사용된다.

예52; 영은은 천천히 머리를 벗어내려 한 묶음으로 모아 땀었다. 그리고 등이 겁나게 패인 노란색 원피스를 벗어놓고 흰색 레이스 집시치마를 입다가 벗어 놓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샀던 흰 바지를 입었다.(겨울새)

예53; 새벽 5시 전철 속의 그는 빈속. 새벽 전철 빈 칸 이 그의 빈 내장과 닮았다. 그는 수업을 마치고 새벽에 나간 길을 고스란히 되돌아와 가발을 벗어 다락문 안쪽에 걸고 양복을 벗어 비키니옷장에 넣고 빈 방에 차려져 있는 상 위의 배추국에 밥을 말아먹고 도시락을 들고 동사무소 방위 근무지로 간다. (외판방)

예54; 山田は会話が機微にふれてきて、自分で自分のいっていることが分からなくなったのか、それっきり口をつぐんで、柴元がオーバーをぬいでいるのに気がつく、自分もいそいでぬいで小脇にかかえこみ、その拍子に道路をふりかえった。とたんに山田の浅黒い顔の中でよきしまった口がゆがみ口惜しそうな表情になった。

(アメリカン・スクール)

예55; 憬子は入江にコーヒーを出すと、寢室に行った。スーツを脱ぐ前にまずイヤリングを外し、ジュエリーケースの中にしまう。そしてもう片方の耳に手をやると、そこにはイヤリングがなかった。(君といた夏)

## 5. 일반칭의 경우

의복을 나타내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치마·셔츠·팬티와 같이 의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옷·외출복·작업복·속옷·잠옷 등과 같이 의복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일본어는 다음에서 보여지 듯 「着る」「つける」「はおる」「まとう」 등 여러 동사가 사용되며,

예56; 私は、ベッドに起き上がって、頭を振った。それから、こっそりベッドを抜け出し、パジャマを脱いで、服を着た。(早春物語)

예57; その時、急に下駄の音がした。見張っている家からである。桐子は身体を隠した。出て来たのは中年の女だった。近くに使いに出るのではないことは、女が、外出着を着て、手提袋のようなものを下げていることで見当がついた。(霧の旗)

예58; 僕らは作業衣をつけ、ゴム手袋をはめて、死体運びをはじめねばならなかった。(死者の奢り)

예59; アオイには黒も似合うと思う。とマーヴは言うけれど、私はどうしても黒い下着をつける気になれない。(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예60; 「雨だね」

高梨は洗淨の手を休めず告げた。

「湿気は修復に良くない」

彼は綿棒を微細に動かして洗淨作業を行っていた。表情は冷静沈着だったが、手先が僅かに震えているのが分かった。ぼくはジャケットを脱ぎ、作業着を頭から羽織ると、高梨の隣に座っ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예61; 先生にスケッチされながら、あおいのことを時々考えてしまう。衣服を纏っていないせいで、心が大胆になればなるほど、その解放感の中、ぼくは過去を飛行し、あお

いを思い出す。(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한국어는 다음에서 보여지 듯, 「입다」 「걸치다」 라는 동사가 사용된다.

예62: 그제야 삼순은 자신의 몰골을 생각하며 재빨리 침대 시트로 가슴께를 가렸다. 자신을 노려보는 아줌마의 무시무시한 시선에 삼순은 저 아줌마 역시 깨어난 직후 자기가 했던 종류의 의심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장 “그게 아니에요, 아줌마!”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옷을 입고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이름은 김삼순)

예63: 속옷조차 색깔에 신경쓰는 아내는 고시원이 있는 절 밑의 여관에서 함께 밤을 지낼 때면 그가 자신이 개어놓은 순서대로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가볍게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다. (인간에 대한 예의)

예64: 아이스 크림을 핥으며 까만 나가사끼 강 위의 눈부신 불꽃들을 구경했다.

아름다움이라기 보다는 신기함과 설레임의 과장된 감정이었다.

일본 잠옷을 입고 폼을 잔뜩 잡고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친구들이 아주 교태스러워 보인다고 했는데 듣기 싫지는 않았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들뜬 탓인지 쉽게 잠이 오질 않았다. (날지 않는 새)

예65: 삼순의 치를 떠는 모습에 도영은 방금 전 이 비슷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았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막 옷이 배달되어 삼순이 욕실로 들어가 옷을 걸치러 간 사이 어머니는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으셨다. (내 이름은 김삼순)

예66: 학교에 안 나간 지 일주일쯤 된 날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외사촌이 방문을 열며 나를 조심스럽게 부른다. 니 담임선생이 왔어.’ 열일곱의 나, 명청히 외사촌을 바라본다. ‘가정방문 하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 나는 큰오빠와 선생님이 마주칠까봐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은 천천히 방을 들여다본다. 선생님은 나를 보고 버스정류장까지 좀 걸자고 한다. 양말을 신고 옷옷을 걸치고 선생님을 따라 나간다. 골목길에서 선생님은 내 어깨를 툭툭 다독거린다. (외판방)

예67: 그리고 새벽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들이 닦쳤을 때 그녀의 머리에는 흘러내린 피가 응고되어 있었고 방바닥에는 술병이 깨져 그 날카로운 조각이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저기 찢어진 속옷만을 걸친 채, 완전한 나신으로 엎드려져 있는 백도성을 가리키며 몸을 떨어댔다.

(너의 가슴에 나의 사랑을 묻을 수 있다면)

그런데 의복을 일반칭으로 나타낼 경우에 있어, 이것을 몸에서 벗을 때도 한국어는 「벗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며, 일본어는 「脱ぐ」라는 동사와 함께 다음에서 보여지 듯 「外す」라는 동사도 사용된다.

예68; 새로 이사한 집은 두 칸짜리 전세방이었다. 이삿짐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었다. 누나가 음식점에 음식을 시키는 사이 나는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얼굴이 훌쩍 할 뿐 몸이 별로 축난 것 같지는 않았다. 옷을 벗고 거울로 등을 돌렸다. (오월의 미소)

예69; 그녀가 훌떡 겉정 레이스 잠옷을 벗어버리고 침대로 올라오며 깔깔거리고 늙은 고양이 같은 웃음 소리를 냈다. (그들과 장미)

예70; まだ早いのか、部屋には十人近い人々が、うろうろしているだけで、空いているベッドが多かった。  
勿論寝ているひとはひとりもいなかった。だが準次は、のろろ服を脱ぐと、ベッドへ横になり、毛布を頭からかぶった。(神の道化師)

예71; 私は、ベッドに起き上がって、頭を振った。それから、こっそりベッドを抜け出し、パジャマを脱いで、服を着た。(早春物語)

예72; 僕らは時どき廊下に出て、作業衣を外し、軀を拭った。しかし、どうかするはずみに、冷(ひ)んやりした空気が首筋から入って来ると、悪寒で身震いするほどだった。僕は空気の底に沈殿する臭いにかまわないで度たびマスクを外し、鼻孔いっぱい空気を吸いこんだ。(死者の奢り)

예73; 「いやじゃないよ。服を着るんだ。裸になったって、何も変わらない」  
芽実の手が止まって、彼女は再び泣きだし、泣きながら服を脱ぎつづけた。下着を外すと、胸が露(あらわ)になった。短くなった髪のせいで、頭がいっそう小さく見え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 6. 마치며

지금까지 논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입다(着る)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다」와 「걸치다」라는 2개의 동사인 반면, 일본어는 「着る」「羽織る」「着ける」「まとう」라는 4개의 동사가 쓰여, 한국어보다 일본어의 어휘가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2) 벗다(脱く)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도, 한국어는 「벗다」라는 동사 하나만 쓰이는 반면, 일본어는 「脱く」「取る」「外す」라는 3개의 동사가 쓰여, 여기서도 「벗다」라는 의미의 일본어의 어휘가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3) 일본어는 신체의 위치(상반신이면 「着る」, 하반신이면 「はく」)에 의해 동사가 달라진다. (이에 반해, 한국어는 사물의 종류에 의해 동사가 달라지는데 옷이면 「입다」, 신발이나 양말이면 「신다」임.)
- (4) 일본어에서 「입다」를 나타내는 「はおる」와 「つける」모두 원피스와 같은 [상·하반신이 붙어 있는 의복]과 일반청의 경우에 쓰이지만, 「はおる」라는 동사는 하반신 의복에는 쓰이지 않으며, 「つける」라는 동사는 상반신 의복에는 쓰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 「まとう」라는 동사 또한 [상·하반신이 붙어 있는 의복]과 일반청의 경우에 쓰이지만, 이 동사는 상반신 의복과 하반신 의복에는 쓰이지 않는다.
- (5) 한국어의 「걸치다」라는 동사는 「입다」라는 동사와 거의 동일하게 쓰인다. 다만 작품 속에서 [상·하반신이 세트로 된 의복]에서 「걸치다」라는 동사가 쓰인 예문이 보이지 않는 특징적이며, 팬티에 한해 「입다」라는 의미로 「차다」라는 동사가 쓰인 것도 특이하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일본어									
	입을 때		벗을 때	입을 때		벗을 때							
상반신의 의복	입다	걸치다	벗다	着る	は お る	ま と う	脱く	取る					
상·하반신이 붙어 있는 의복													
일반청의 경우													
상·하반신이 세트로 된 의복													
하반신의 의복			걸치다		はく								

## 【引用 및 参考文献】

- 言語学研究会編 (1983) 『日本語文法・連語論 (資料編)』 むぎ書房, p.158, p.296  
高橋太郎(2003) 『動詞九章』 ひつじ書房, p135~138  
宮島達夫(昭和47)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国立国語研究所

## 【出典一覽】

### (日本語 例文 出典)

- 赤川次郎 『早春物語』 (角川文庫)  
芥川竜之介 「トロッコ」 (『蜘蛛の糸・杜子春』 所収 新潮文庫)  
安部公房 『砂の女』 (新潮文庫)  
石坂洋次郎 「若い娘」 (『女同士』 所収 角川文庫)  
石坂洋次郎 『丘は花ざかり』 (新潮文庫)  
五木寛之 『水中花』 (新潮文庫)  
江国香織 『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角川文庫)  
大江健三郎 「死者の奢り」 『死者の奢り・飼育』 所収 新潮文庫)  
小川国夫 「アポロンの島」 (小田切進編 『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 所収 新潮文庫)  
北 杜夫 『奇病連盟』 (新潮文庫・昭和五十七年・十八刷)  
北川悦吏子 『君といた夏』 (角川文庫)  
北川悦吏子 『最後の恋』 (角川文庫)  
栗 良平 「一杯のかけそば」 (『栗 良平作品集 2』 所収)  
小島信夫 「アメリカン・スクール」 (小田切進編 『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 所収 新潮文庫)  
佐野 洋 『二人で殺人を』 (角川文庫)  
椎名麟三 「神の道化師」 (小田切進編 『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 所収 新潮文庫)  
辻 仁成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角川文庫)  
夏目漱石 『坊っちゃん』 (集英社)  
新田次郎 『八甲田山死の彷徨』 (新潮文庫)  
蒔田光治・太田 愛・福田卓郎 『トリック 2』 (角川文庫)  
松村清張 『霧の旗』 (新潮文庫)  
向田邦子 「隣りの女」 (『隣りの女』 所収 文春文庫)

### (韓国語 例文 出典)

- 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창작과 비평사)

- 김성종 『최후의 밀서』 (명지사)  
김수현 『겨울새』 (여원)  
김수현 『그들과 장미』 (여원)  
김하인 『국화꽃 향기 1·2』 (생각의 나무)  
방귀희 『날지 않는 새』 (진영출판사)  
박영한 『왕릉일가』 (민음사)  
송기숙 『오월의 미소』 (창작과 비평사)  
신경숙 『외판방』 (문학동네)  
지수현 『내 이름은 김삼순』 (도서출판 눈과 마음)  
황운성 『너의 가슴에 나의 사랑을 묻을 수 있다면』 (경성라인)  
조선일보 여론광장 (2008년 1월 14일 A33면)

## 要 旨

この論文は、日本語と韓国語において、衣服に関わる再帰動詞の特徴を、韓国語と日本語で書かれた作品の中に実際に使われている例に基づいて、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衣類を身につける場合も、日本語の方が韓国語より、その表す語彙が豊かであり、体から衣類をとりはずす場合も、日本語の方が韓国語より、それを表す語彙が豊かである。また、日本語の場合は、衣類を身につける時、その衣類が上半身のものか、下半身のものかによって、その使われる動詞が異なるのに対して、韓国語の場合は、衣類が上半身のものか、下半身のものかには関わりなく衣類であれば、それを身につける時は、その表す動詞が同じである。(韓国語の場合は、ものの種類(衣類の場合は「입다」で、靴や靴下の類は「신다」である)によって、その表す語彙が異な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連語論・取り付け動詞・取り外し動詞・再帰的用法・衣服の種類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